

## 상반기 오리 가격전망

조문규 사무국장

올해 오리가격은 뛰니뛰니해도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재개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오리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오리고기 소비량과 사육량이 어떻게 변하는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오리고기 소비상황은 전반적으로 경제여건이 다소 호전되면서 전년에 비해 다소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오리사육량은 지난해 호황에 힘입어 사육수수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내 오리사육량은 지난3개월간 종오리 사료생산량을 기초로하여 새끼오리 생산량을 기초로 추정될 수 있는데 지난해 11월이후 3개월간 월평균 종오리 사료생산량은 1천3백67톤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종오리사료 생산량은 97년도 월평균 생산량 1천5백18톤에 비해서는 약10% 줄어든 량이나 98년도 월평균 생산량 1천1백71톤에 비해서는 16.7%가 증가된 량이다.

특히 지난해 새끼오리 및 육용오리 가격상승에 의해 부화장들이 종오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된 종오리를 새로운 후보종오리로 교체한 것으로 보여 새끼오리 생산여건은 크게 호전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올 상반기 오리사육량은 98년도에 비해 약 20%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같은 사육량 증가는 5월과 7월 사이에 피부에 와닿을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오리사육량이 전년에 비해 20%이상 증가하더라도 97년도 사육량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한 사육량이고 당시는 매월 약 4-5백톤의 오리고기가 수입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오리고기 소비량이 경제불황으로 약 45%이상 감소했다 하더라도 상반기 오리가격은 수입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산 오리고기의 수입재개 움직임이 일고 있고 수입재개로 인해 중국산 오리고기가 수입되는 상황이 재연된다면 국내 오리가격은 하반기 이후 국내 사육량 증가와 수입량 증가가 맞물려 이에따른 가격하락이 예상되어 사육농가들의 신중한 대처가 요망된다.